논어 7편 술이 11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富而可求也，雖執鞭之士，吾亦爲之；如不可求，從吾所好。」

독음 · 자왈 부이가구야 수집편지사 오역위지 여불가구 종오소호

쉬운 풀이(요약) · 부를 정당하게 얻을 수 있다면 낮은 일도 하겠지만, 그럴 수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도를 따르겠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富 가멸 부 부 / 而 말이을 이

可 옳을 가 가 / 求 찾을 구 구 / 也 어조사 야 / 雖 비록 수 수

執 잡을 집 집 / 鞭 채찍 편 편 / 之 갈 지 / 士 선비 사 사

吾 자기 오 오 / 亦 또 역 / 爲 할 위 / 如 같을 여 여

不 아닐 불 / 從 좇을 종 종 / 所 바 소 소 / 好 좋을 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